

문화재에 새 생명을... 보존과학 40년史 한눈에

국립나주박물관 9월18일까지 특별전

- 분석·처리·복원·예방보존
- 4개 테마 나눠 전시 구성
- 문화재 50여점 처리과정 선보
- 첨단 디지털기기 복원 체험도



지난 1980년대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무덤에서 발견된 금동관(국보 제295호)을 복원 하는 모습.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국보 제90호 경주 부부총 출토 금귀걸이.



문화재 보존 가상현실 체험행사.

지난 2014년 나주시 반남 정촌 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 신발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발 앞 부분에 장식된 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완벽한 보존상태를 보였다.

박물관 역할은 출토에서부터 시작이다. 상태가 좋은 유물이더라도 더이상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존 처리한 후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줘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5일부터 9월18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박종환 관장)에서 열리는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문화재를 지키다'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숨은 노력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 보존과학이 도입된 지 4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했던 특별전을 바탕으로 나주박물관이 새롭게 구성했다. 손상된 문화재를 처리·복원하는 '보존과학' 분야를 소개하고 문화재와 보존과학 연구결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국보 3점을 포함한 문화재 50여점의 처리과정을 선보이며 이해를 돕는다.

보존과학은 크게 조사와 분석, 처리·복원, 예방보존 등으로 구분된다. 전시도 여기에 맞춰 4개 테마로 구성했다.

1부 '첫 발을 내딛다'에서는 1970~80년대 보존과학 초창기에 보존처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의 문화재가 처리된 과정을 영상자료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2부 '우리문화재, 속을 들여다보다'는 유물을 제작할 당시 사용한 재료와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다. 국보 제90호 경주 부부총에서 출토된 금귀걸이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과정을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직접 현미경으로 금귀걸이 누금(鍍金·금속에 새겨진 무늬)을 관찰할 수 있다. 또 각종 분석기기로 우리 문화재를 연구한 결과를 선보인다.

3부 '병든 문화재를 치료하다'는 손상된 문화재를 보존처리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도세자 딸이자 정조 누이인 정연공주 묘에서 출토된 복식과 장식품을 보존처리과정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 3D 스캐닝·프린팅 기법을 활용해 복원한 용 구름 무늬 주전자를 복원과정과 함께 소개한다.

마지막 4부 '문화재의 생명을 연장하다'에서는 문화재 환경 관리와 해를 끼치는 요인을 정리해 설명한다. 박물관에서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밖에 최신 디지털 미디어기기를 이용해 가상현실로 문화재 복원과정을 체험하는 공간인 '보존과학을 체험하다'도 마련된다. 머리에 영상기기를 착용한 후 체험자가 고개를 돌리면 화면이 따라 움직이는 180° 실감 영상을 통해 직접 문화재를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편에는 금동관 보존처리 체험공간을 구성한다. 스크린 안에 나타난 금동관 가상현실 이미지를 3D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해 움직이게 하는 형태다. 스크린 앞에 놓인 상자 위에 체험자가 양 손을 올려 움직이면 스크린에서 손의 형태가 나타나 금동관 VR 이미지와 반응하는 형식이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이 문화재와 보존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문의 061-330-785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내팝아트교류전 'pop to the future'



▶고근호 작 '꽃여행'

주안미술관 22일까지

주안미술관이 국내팝아트교류전 'pop to the future'전을 22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광주를 비롯한 국내 대표 팝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며 최신 팝아트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광주에서는 고근호, 양재영, 강동호, 이조흠, 류금상 작가가, 서울에서는 팝 아티스트 찰스장, 코마, 후디니, GFX 작가가 참여하며 일본에서 활동 중인 조세민 작가도 함께한다.

고근호 작가는 스틸, 스테인레스, 알

루미늄 등 철재 소재를 활용해 팝아트 조각을 선보이고 있는 고근호 작가는 작품 '꽃여행'을 출품했다.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탄 노란 자동차 위로 꽃밭을 배치한 조각 작품이다. 우스꽝스러운 가족들 표정과 노랑, 파랑 등 원색으로 표현한 꽃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찰스장 작가는 웃고있는 하트모양으로 화폭을 가득 채운 'HappyHearts(White)'을 선보인다. 또 코마 작가는 문양과 곡선으로 미키 마우스를 형상화한 'Pop micky'를 전시하며 독특한 튀는 팝아트 매력을 전해준다. 문의 062-222-2083 /김용희기자 kimyh@

'목요사진' 회원전 '오색얼음종이 SOS...'



▶엄수경 작 '기억을 호출하다...'

광주학생문화회관 10일까지

사진모임 '목요사진'(회장 김형주)이 10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두번째 회원전 '오색얼음종이 SOS 풍경'을 연다.

이번 전시는 김형주 회장을 비롯해 엄수경, 오형석, 임성국, 장준식 회원이 참여해 5·18에 대해 이야기한다. 회원들은 약 1년간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505보안부대 옛터(5·18사적 26호)를 앵글에 담았다. 5·18 당시 지하실에서 무지비한

고문이 자행되던 곳이다. 회원들은 '505'를 조난신호 'SOS'로 재해석해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한다.

김회장은 '505를 읽고 쓰다' 작품을 출품했다. 텅 빈 방안에 놓인 하얀 테이블 위에 과일 씨앗을 놔뒀다. 엄수경 회원은 깨진 창문을 넘어 담쟁이덩굴이 건물 내부까지 들어온 모습을 포착했다. 작품 '기억을 호출하다. 제26호'. 잊혀져가는 5·18을 상기하려는 듯 담쟁이덩굴은 관람객들을 향해 뻗어오고 있다. 문의 062-380-8800.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시립미술관 '광부화가' 황재형 작가 여름캠프 참가자 40명 선착순 모집

'광부화가' 황재형 작가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여름캠프 '회화의 조건 복귀(復歸)'(8월1~10일 오전 9시~오후 5시) 참가자를 모집한다. 복귀는 '삼태기로 흙을 날라 쌓으면 산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황재형 예술캠프는 황 작가를 비롯해 태백미술연구소 소속 연구원 10여명이 함께한다. 답사를 포함해 예술론

의 비판과 해석, 조형론의 분석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실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조별토론과 개인지도도를 통해 주어진 주제를 형상화시키는 시간을 갖는다.

수강생은 총 40명은 모집하며 20명은 일반인, 20명은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 모집이며 수강

료는 무료이고 재료비 10만원을 받는다.

보성 출신 황 작가는 태백 황지탄광에서 경도 매물 사고로 사망한 광부 김봉춘씨의 작업복을 국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 '황지330'으로 중앙미술대전에서 입선, 데뷔했다. 이후 30년 넘게 광부들과 함께하며 탄광촌과 삶을 화폭에 옮겼다. 문의 062-613-7133. /김용희기자 kimy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 *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7월호

6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이름날의 旅·休

특집

낭만, 체험 찾아 이름날의 旅·休

낭만 만끽 야한 여행
이색 체험 여행지 4곳
정자에 앉아 고요하게 休

남도 미술관
유물과 유적으로 남은 시간의 숨결
홍이 장아 곶탕 맛의 3차
황포동해에 띄운 열산포 축제

소문난 예술교육 현장을 찾아서④
매회 전시 매진 신화 '인문학 콘서트'
대전 예술의 전당

노동운동의 몸의 여행⑦
낯설지만 완벽하게 아름다운 섬
물타

예감이 만만 이사람
젊은이들의 문화이웃 '동네주민' 대표 김태진
그라운드에서 존재감 빛나는 광주FC 수문장 윤보상

리빙인 스토리
전문가 민서정씨가 알려주는
'포슬린 아트' 기법과 매력

예향 초대석

청년들의 창업 멘토
감성세프, 장진우
"광주 청년들과 '국 폴리' 맛있게 만들게요"

남도의 장인들
정제기술로 옷칠의 현대화 시도
옷칠장 박강용

사람이 브랜드다
눈물 쏟아야만 절창, 유일무이
소리꾼 임방울

전북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서②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강학 자리, **순창 훈몽재**

전남의 미래, 다도해를 가다③-신인
각각의 역사와 문화 간직한
'섬박물관' 신인

정오수의 스포츠 인사이트⑥
축구팬 위촉시키는 '홀리건 악행'

문화 화제
해남 배짱이네 예술창고
'고라니'가 키우는 공발전

백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⑤
사투리 쓰면
흔스러운건가?

스타 데이트
"여심 사로잡은 비결은 대본에 충실한 연기"
tvN '또 오해영'의 박도경으로 인기몰이, **애릭**